

정무제2장관실이 최근 발표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평가 기준에 대해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정무제2장관실이 대륙연구소(소장 장덕진)에 의뢰해 전국의 20~50대 주부 1천5백명(경제활동주부 6백40명 전업주부 8백60명)을 대상으로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와 결정요인’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6시간57분이며 △이를 돈으로 따지면 월 52만8천1백93원으로 나타났다.

정무제2장관실이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최적평가액’으로 발표한 52만8천1백93원은 가장 중요한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결혼지속 연수, 가구소득, 가사노동 대체적에 지급 가능한 임금(총합적 대체 비용법),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이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기회 비용법),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최

고 자료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정학자, 여성계 인사들은 “이번 조사결과는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제대로 평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 자료가 관계기관에

학), 홍연숙 전문직여성클럽 회장 등은 “총합적 대체비용법, 기회비용법, 요구임금법을 주요 뼈대로 한 이번 주부 가사노동 가치 평가는 모두 주부의 의견을 토대로 한 것이라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고 조사방법도

91.12.18

“주부 가사노동 정부평가 불합리”

여성계 재조사 요구 전문가 대체비용등 감안해야

소한의 임금(요구임금법)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정무제2장관실은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평가한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이번 주 안에 국회, 법조계, 노동계, 보험업계, 여성계 등에 참

보내져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상속세·증여세 등 각종 세액계산, 보험료 환산 등에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참고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외국어대 김애실 교수(경제

용법’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영 가정법률 상담소 소장도 “60년대부터 가사노동 문제를 연구해온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토대로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잘못됐다”면서 “주부의 가사노동을 요리사, 세탁사, 가정관리인 등 전문가가 대행할 때 얼마로 평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대체비